

## 〈소현성록〉에 나타난 여성 가장의 리더십과 그 의미

강우규\*

<차례>

1. 서론
2. 한 부모 여성 가장의 훈육 방식
3. 소현성의 강박적인 효 실천
4. 여성 가장의 리더십과 과도기적 시대상황
5. 결론 - 가문의 안정과 성장하는 리더십

### 〈국문초록〉

〈소현성록〉은 여성 가장 양부인의 유교적 제가와 훈육아래 성장한 소현성이 효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실행하며 가문을 안정시키는 내용의 이념지향적 작품이다. 이는 17세기 중후반 가부장제가 강화되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사대부가 여성들의 리더십이 작품 속에 구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훈육 과정에서 양부인은 가문의 안정을 위해 다소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는데, 이는 아들에게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고 절대적 순종을 강요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성인군자 소현성은 과거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아내들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행사하는 문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소현성의 모습은 예학 논쟁의 과정에서 서인들이 추구하는 ‘효’ 중심의 예설이 반영된 것이면서, 이념지향성이 내포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소현성록〉은 17세기 중후반의 과도기적 시대상황 속에서 이념지향적 서술태도, 현실적 욕망과 문제의식이 이원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작품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가부장, 여성가장, <소현성록>, 교육방식, 이념, 욕망

\* 남서울대학교 시간강사

## 1. 서론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중 <소현성록> 연작은 옥소 권섭의 서책분배기를 통해 17세기 중후반에는 창작되고 향유되었을 것으로 파악되는 작품이다.<sup>1)</sup> <소현성록>이 향유되었던 17세기는 고전소설사에 있어 가장 매혹적인 탐구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이미 그 이전에 소설이 성립된 것이 사실이지만 17세기는 형성기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도 향후 펼쳐질 소설사의 다양한 모습들이 한꺼번에 시험된 시기였기 때문이다. 한문과 한글, 상층과 하층, 남성과 여성, 단편과 장편, 한국과 중국, 현실과 낭만, 진지성과 통속성 등이 제각각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대립·대응하고 있었으며, 향후 소설사에서 주도권을 잡게 될 우세 양식을 결정하는 대결장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sup>2)</sup> 그 과정에서 17세기 초까지 전기소설 일변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소설사는 17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하여 주류적 위치를 국문장편소설에 넘겨준다.<sup>3)</sup>

이 시기에 향유되었던 <소현성록> 연작은 국문장편소설의 모색기 작품으로서 통속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사대부들(사대부가 여성들 포함)에게 있어 수신서적(修身書的) 성격을 지닌 작품으로 파악되어 왔다. 그러면서도 이 작품은 18세기 이후 향유된 여타의 국문장편소설과는 달리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이중적 성격의 작품으로도 평가된다. 그리고 <소현성록> 연작의 이중성은 여성중심적 또는 남성중심적 시선에서 작품을 바라보는 정반대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였다.<sup>4)</sup> 뿐만 아니라 작품의 성격을 아예 이중적으로 파악한 논

1)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3, 35~45쪽.

2) 송성욱, 「17세기 소설사의 한 국면」, 『한국고전연구』 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3, 241쪽.

3)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돌베개, 2005, 25~26쪽.

4) 전자는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 『고소설연구』 4, 한국고소

의들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는데,<sup>5)</sup> 이러한 논의는 작품의 주 향유층인 사대부 여성의 이중적인 성격, 또는 본전과 별전의 차이 등을 주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작품의 여성주의적 성격으로서 특히 언급이 많았던 것은 여성 가장인 양부인의 성격과 역할이다. 여성 가장 양부인에 주목한 논의는 양민정, 박일용, 서정민, 이지하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양민정은 양부인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가문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분석하였고, 이를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발의식 혹은 여성 능력 우월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였다.<sup>6)</sup> 박일용은 양부인으로 대표되는 여성 사대부 향유층의 이념과 편견이 반영되어 가부장제의 이념과 가부장제의 질곡이 공존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서정민은 소부의 가권이 양부인에서 소월영으로 승계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이를 17세기 중후반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생존과 직결된 절박한 가문의식으로 그 의미를 도출하였다. 이지하는 작품에 주인공 소경의 이중적 면모, 술을 비

---

설학회, 1998, 293~327쪽; 양민정, 『<소현성록>에 나타난 여가장의 역할과 사회적 의미』, 『외국문학연구』 12, 한국외대 외국문학연구소, 2002, 101~126쪽; 정선희, 『<소현성록>에 드러나는 남편들의 폭력성과 서술 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453~487쪽; 조혜란, 『소현성록의 보여주기 서술과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217~264쪽; 서정민, 『가권승계로 본 <소현성록> 가문의식의 지향』, 『국문학연구』 30, 국문학회, 2014, 203~227쪽 등을 들 수 있고, 후자는 박영희, 앞의 논문, 1~258쪽; 임치균,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인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29~48쪽; 조광국, 『<소현성록>의 별명 성향에 관한 고찰』, 『온지논총』 7, 온지학회, 2001, 87~113쪽 등을 들 수 있다.

5) 정선희, 『<소현성록> 연작의 남성 인물 고찰』,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37~68쪽; 박일용, 『소현성록의 서술시각과 작품에 투영된 이념적 편견』, 『한국고전연구』 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5~39쪽; 이지하, 『소현성록의 이중성에 내재된 욕망의 실체』, 『반교어문연구』 40, 반교어문학회, 2015, 237~269쪽 등.

6) 양민정, 앞의 논문, 101~126쪽.

릇한 풍류 행위에 대한 이중적 면모, 여성에 대한 인식의 이중적 면모가 나타나며 그 이유를 양부인의 욕망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이를 어머니의 지위를 지닌 상층 가문 여성들의 욕망을 대변하는 것으로 논의하였다.<sup>7)</sup> 이상의 논의들에서 한 집안의 리더인 양부인이 성격과 역할이 아들인 소현성의 인물 성격 형성에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양부인의 인물 성격이 작품이 향유되던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이 본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바이다.

<소현성록>은 가부장의 부재 상황을 설정하고 한 부모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가부장의 부재 상황이란 것은 가부장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의 리더십이 부족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소부의 가부장인 양부인은 경제적, 여성적 한계 등으로 인해 리더십 발휘에 있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야기된다. 여성의 대외적 활동이 제약되어 있었던 조선시대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리더로서 양부인의 한계는 더욱 더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초기의 국문장편소설로서 <소현성록>이 왜 가부장의 부재상황을 설정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양부인이 처했던 상황이나 양부인의 리더십(또는 자녀교육)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 2. 한 부모 여성 가정의 훈육방식

소현성은 유복자로 태어나 아버지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접해보지 못하고, 모친인 양부인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란다. 남편이자 가장이었던 소처

7) 이지하, 앞의 논문, 237~269쪽.

사의 죽음 이후 양부인은 가문의 존립과 부흥을 위해 가문의 내외사를 주관한다. 소처사는 8대 독자로 평생을 처사로 살아온 인물이다. 소씨 가문이 한나라와 당나라 시절에 대대로 재상을 배출한 명문가였으나 소처사는 송나라 태조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은거하였다는 서두의 내용은 소현성의 한미한 집안을 미화하기 위한 수식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며 소씨 가문의 정치적 위상은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sup>8)</sup> 또한 소처사가 죽으면서 장인에게 아내를 위탁하고 있는 상황은 소부의 경제적 현실이 가난에 가까웠을 것임을 짐작하게 해준다.<sup>9)</sup> 양부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문의 몰락을 막고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유가이념에 입각한 교육과 치가뿐임을 명백히 인식하고<sup>10)</sup> 남편의 3년상을 마친 후 아들을 어루만져 가르치고 장녀 월영과 차녀 교영에게 다 女道를 힘써서 가르치며, 처사의 첩인 석과 이파를 어린아이같이 붙잡히 여겨 안팎을 잘 다스려 안정시키고, 혹은 부드럽고 혹은 엄숙하며 상벌을 명백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현성에게 양부인은 자모(慈母)이자 엄사(嚴師)의 역할을 담당한다. 양부인은 소현성의 양육과 교육에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소현성이 두 살이 못 되어 글자를 깨쳐 알고 세 살에 성인의 경전을 낭랑하게 외우자 행여 나중에 크게 되지 못할까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서당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한다. 이때 소현성은 모친의 염려하심을 알고 자신의 나이가 어리니 공부에 나아감이 바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소현성이 7살이 되었을 때 양부인은 직접 글을 가르쳤는데, 이때 소현성의 행실은 “사람의 도리가 성숙해지고 효성이 출중하였다. (중략) 하루 네 번 문안드리는 일과 행실이

8) 이지하, 앞의 논문, 262쪽.

9) 서정민, 앞의 논문, 220~221쪽.

10) 박일용, 앞의 논문, 16쪽.

『소학』보다 더한 일이 많”<sup>11)</sup>아서 양부인은 아들의 몸이 상할까 근심하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금하기도 한다. 하지만 소현성은 스스로 몸 보존하기를 깊은 못에서 봄 얼음 던는 듯 조심하고 있다면서 어머니를 안심시킨다. 이때 양부인은 “내 아이가 하는 일이 노나라 효낭자보다 못하지 않으니 어미가 일찍 기쁘면서도 두렵구나. 너는 다만 몸가짐을 여윈 옥처럼 하여 내 고독함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을 위로하여라.”<sup>12)</sup>고 훈육한다.

이러한 대목은 어린 소현성의 지극한 효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 부모 가장으로서 양부인의 심정이나 바람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성의 지극한 효성이 기쁘면서도 혹시나 잘못될까 염려하는 마음 한편으로 남편을 여윈 고독함과 이를 아들 현성으로부터 위로받고 싶은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야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 부모 여성가장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양육 문제, 배우자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처럼 현실적인 생활의 어려움들은 한 부모 여성가장에게 더욱 일상생활 속에서 새로운 일에 대한 시도라든가 대인관계의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낮아진 자존감으로 자녀 양육을 하게 되어 자녀에게 자신이 가지지 못한 부분을 기대치 이상으로 기대하고 요구하게 된다.<sup>13)</sup> 양부인 역시 한 부모 여성 가장으로서 현성에 대한 이러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치는 소현성에 대한 엄한 교육으로 이어진다.

양부인은 소현성에게 철저히 금욕적인 수행을 강요한다. 소현성에게

11) <소현성록> 1권, 14~15쪽.

12) <소현성록> 1권, 16쪽.

13) 이정희·이기숙, 『한부모 여성가장의 독서치료 사례 연구』, 『독서치료연구』 3권 1호, 독서치료연구학회, 2010, 76쪽.

만은 음주를 비롯하여 풍류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방탕한 것으로 가르치면서 엄격히 금하게 하고, 늘 바른 수행을 강조하며 매우 절제된 행동을 요구한다. 이는 소현성이 기생을 접하거나 술을 마신 행동에 대하여 양부인이 엄하게 질책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현성은 뛰어난 풍채와 외모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창기들의 유혹을 받지만, 모두 물리치고 응하지 않는다. 그러던 중 친구들이 창기들을 불러 풍류를 즐기도록 시키지만 기생들과 엄격한 거리를 둔다. 이러한 모습을 본 친구들은 소현성을 ‘사마천의 후신’이라며 칭찬한다. 소현성이 기생들과 어울린 것을 안 양부인은 “내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너를 의지하여 아름답게 혼인하기를 바랐다. 그런데 네가 어찌 감히 요사한 것을 외당에 모아 혼자서 방자한 일을 한단 말이나? (중략) 네가 어린 나이에 임신하여 천자의 은혜가 중하시니 마땅히 마음을 경계하여 체면과 위의를 바르게 해야 한다. 그리고 아비 없이 외로운 어미를 모시고 처지가 쓸쓸하니 호화롭게 지내는 것이 가하지 않거든 과부의 집에 창기의 음악과 친구들을 어지럽게 모으겠느냐? 다시 네 마음대로 행동하면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sup>14)</sup>과 꾸짖는다. 조롱으로까지 해석될 정도인 ‘사마천의 후신’이라는 친구들의 평가는 소현성이 얼마나 금욕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양부인은 기생을 모은 것뿐 아니라 친구들을 불러들인 것까지도 질책하면서 보다 더 엄격하게 절제와 검약의 태도를 강요한다.

또한 양부인은 소현성이 칠왕과 장인에 강권에 못 이겨 술을 마시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꾸짖는다. 소현성은 칠왕의 강권에 술을 마시고 취기가 올라 얼굴이 붉어진 상황에서도 엄숙하고 단정하며 행여 바르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이후 자운산으로 돌아와 잠시 쉬고 모친을 찾아뵙는데, 이러한 현성의 모습은 당대의 바른 사람이고 예와 지금에 이르는

14) <소현성록> 1권, 45~46쪽.

군자라고 묘사된다. 하지만 양부인은 취기가 오른 소현성을 보고 수행이 부족한가 싶어 마음이 불편하여 “네가 비록 아버 없이 어미를 모시고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지녔을 텐데, 이제 벼슬자리가 맑고 높으며 나이가 약관이니 매사에 어리석지 않을 때이거늘 어찌 나갔다가 들어와 외당에 머물고 어미 보기를 게으르게 하며 술을 취하도록 먹어 바르지 않은 거동을 감히 내 눈앞에 뵈느냐? 빨리 나가고 들어오지 마라”<sup>15)</sup>라며 심하게 책망한다. 소씨 집안 여성들이 서모와 함께 술자리를 벌이거나, 또는 양부인이 자녀들을 거느리고 친정 잔치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을 아름답고 화기애애하게 묘사하는 것을 보면 소씨 가문 여성들에게 술이 특별한 금기 품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술에 대한 금기는 아들인 소현성에게만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집안을 부흥시켜야 할 아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인식시키고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즉 아들이 관리로서의 소임에 충실하면서 가내를 공평하게 다스리기를 바라는 양부인의 기대가 소현성에게 남다른 수행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부인의 과도한 기대에 의해 소현성은 인간적 욕망을 거세당한 인물처럼 형상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도 파악된다.<sup>16)</sup>

양부인이 소현성을 책망하는 내용 중에는 밑줄 친 바와 같이 ‘아버 없이 어미를 모시고’라는 의미의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반복이 강조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는 아버지가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니가 혼자 힘겹게 너를 기르고 있음을 끊임없이 아들에게 주입하는 것이고, 또 그만큼 아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효’라는 자식된 도리로서 소현성을 묶어둔 채 절대적인 순종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sup>17)</sup> 따라서 끊임없이 이러한 훈육을 받는 소현

15) <소현성록> 2권, 62쪽.

16) 이지하, 앞의 논문, 250~252쪽.

성은 여색에 대하여 경직되어 보일 정도로 경계하고<sup>18)</sup>, 어머니에 대한 ‘효’를 강박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로 인해 여러 문제들을 야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3. 소현성의 강박적인 효 실천

양부인의 보호와 가르침 아래 자라난 소현성은 작품 곳곳에서 성인군자에 비견된다. 소현성은 모친과 외숙부들로부터는 “내 아이는 사람 중 성인이고 까막까지 중의 봉황 같아서 속된 사람이 바랄 바가 아니로구나.”<sup>19)</sup>, “너를 대하면 우리 몸을 자연히 돌아보아 수련하고, 네 말을 들으면 성교를 대함과 같으니 실로 공맹의 후신이 아니면 이렇지 못하리라.”<sup>20)</sup>고 평가되면서, “수신에 전념하고 당대의 유교이념을 수호하는 유학자의 전형”<sup>21)</sup>을 보여준다. 작품 구현된 소현성의 전반적인 모습은 소승상 본전 별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집에서는 유순하면서도 툭 트였고 홀어머니를 효성스럽게 봉양하는 일에는 정성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으니 비록 그 옛날 증자(曾子)라도 이보다 낮지 못할 바였고, 동기간에는 우애 있고 서모를 공경하였으며 집안 다스리는 것이 한결같았다. 지위가 정승

17) 서정민, 앞의 논문, 213~214쪽.

18) 조혜란, 「소현성과 유교적 삶의 진정성」, 『고소설연구』 36, 한국고소설학회, 2013, 186쪽. 여기에서는 유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군자상에 부합하려면 여색을 경계하는 것이 마땅하나 실제 남성들의 성적 욕망은 ‘풍류’로 미화되면서 허용되는 것이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였을 뿐만 아니라 소설에서도 남성들의 성적 욕망에 대해서는 서술자도 관대하고, 등장인물들 역시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들어 소현성의 경직된 여성관을 파악하고 있다.

19) <소현성록> 1권, 58쪽.

20) <소현성록> 4권, 68쪽.

21) 정선희(2005), 앞의 논문, 42쪽.

에 이르렀는데도 청렴하고 검소하여 입은 옷이 소박하였고 성품이 조용하여 사람들 사귀는 일을 그쳤다. 그러니 평생토록 친구가 십여 명을 넘지 않았다. 또 여자를 꺼려 매일 외당에서 향을 사르고 글을 읽어 문장의 이치를 깨닫는 데 더욱 힘썼고, 행실을 닦아 맑은 도학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자식을 훈계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성인(聖人)들의 풍속을”<sup>22)</sup> 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작품에는 성인군자로서 소현성이 하지 말아야 할 문제적 모습들이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적인 모습은 소현성의 강박적인 ‘효’ 실천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이는 소현성의 과거급제 대목에서 먼저 살펴볼 수 있다. 소현성은 본래 과거에 뜻이 없었으나, “공명을 얻는 것이 기쁘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너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그러니 까닭 없이 과거 시험을 안 보지는 못할 것이다.”<sup>23)</sup>는 모친의 뜻에 따라 한생과 함께 과거에 응시한다. 편모계 효도로 봉양하며 중하게 모실 사람이 자기뿐이기에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과거에 응시하는 것이다. 과거장에서 소현성은 한가로이 노닐다가 시상(詩想)이 떠오르자 일필휘지로 주옥같은 답안을 작성한다. 이후 한생에게 답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과거장을 거닐다가 부모의 바람을 이루지 못해 참담한 기색으로 한탄하고 있는 유한 등 5인의 사정을 듣고 대신 답안을 작성해준다. 결과적으로 소현성은 장원급제하고, 소현성이 대신 답안을 작성해준 5인이 뒤를 이어 급제하며 마지막으로 한생이 급제한다. 그런데 소현성은 5인의 답안을 대신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sup>24)</sup> 과거에서 다른 사람의 답안을

22) <소송상 본전 별서>

23) <소현성록> 1권, 22쪽.

24) 전경문, 『한글편지를 통해 본 조선후기 과거제 운용의 한 단면』, 『정신문화연구』 34권 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27~25쪽 참고. 부정행위를 하면서도 소현성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과거의 폐단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

대신 작성해주는 것은 결코 올바른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대술은 장(杖) 1백에 도(徒) 3년의 형을 주도록 되어 있는 엄금(嚴禁)의 행위이다. 그런데도 한 두 명도 아닌 5인의 글을 작성해주는 대술행위를 함에 있어서 군 자라 할 수 있는 소현성이 아무런 거리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소현성은 과거제도의 규칙보다는 부모에 대한 효를 더욱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편모슬하에서 자란 자신의 처지를 유생들에게 투영하여 동일시하는 감정 또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즉 홀몸으로 자식을 기르는 편부, 혹은 편모의 애뜻한 정황과 그에 대한 자식의 효심이 부각되면서 소현성에게 있어 대리시험이라는 부정행위는 남의 급한 상황을 구하는 군사적 행위로 치환되어버린다.<sup>25)</sup> 조선 후기 과거시험의 부정행위가 국가적 차원의 고민거리로 심각하게 다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소현성의 부정행위는 공평무사한 관리로서의 도덕적 자질이 의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생의 입장을 생각해봐도 2등으로 급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일곱 번째로 간신히 급제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부당하다고까지 판단될 수 있는 소현성의 모습은 그가 ‘효’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효’에 대한 집착은 소현성이 아내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소현성은 여색에 대하여 경직되어 보일 정도로 금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세 부인을 둔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대로 애정을 더하지 않고 공평하게 부인들을 대하며, 서당에서 홀로 수신하는

---

있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과거는 국가를 이끌어갈 인재를 등용하는 시험으로 이를 공정하게 운영한다는 것은 국가의 기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에는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지면서 과거의 운영 역시 엄격, 공정하지 못하여 수종(隨從), 조정(早呈), 협서(挾書), 차술(借述 또는 代述), 혁제(赫蹄) 등의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났다.

25) 이지하, 앞의 논문, 246쪽.

시간에 대하여 꾸준히 묘사하는 것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소현성의 모습은 주변에 타인의 시선이 있으나 없으나 늘 여일한 태도로 인간적 욕망을 제어하며 배운 바 가치대로 신중하게 실천해 내는 유교적인 ‘신독(慎獨)’의 수양방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sup>26)</sup> 하지만 다처제가 가부장인 남성의 욕망을 바탕으로 해서 성립된 가족 형태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설혹, 다처제가 가부장의 성적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혼인을 통한 가문간의 연대를 확장하려는 가문창달 욕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소현성의 태도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이다.<sup>27)</sup> 이러한 소현성의 금욕적인 태도는 어린 시절부터 반복되었던 양부인의 훈육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소현성은 아내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폭력적이라고 할 정도로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화씨와 석씨를 대하는 소현성의 태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화씨는 석파가 소현성에게 재취를 권하는 것을 알고 투기를 부리며 석파에게 표독한 말을 내뱉는다. 이를 안 소현성은 화씨의 유모를 크게 매질하고 8개월 동안 화씨를 찾지 않는다. 소현성은 그녀를 용서해주라는 주변의 권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화씨가 곡기를 끊고 병이 낫다고 해도 찾지 않는다. 화씨는 남편이 오랜 기간 자신을 찾지 않자 설움과 분함을 이기지 못해 죽기로 마음먹고, 곡기를 끊고 20여일 지나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다. 이때 화씨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양부인의 명을 받고 소현성은 불편한 마음으로 화씨를 찾는다. 그리고 병이 든 화씨를 달래기보다는 매몰찬 기상으로 부덕에 관한 긴 설교를 늘어놓는다. 원래 약질이었던 화씨는 현성이 엄하게 꾸짖고 용서하지 않자 누우

26) 조혜란(2013), 앞의 논문, 186쪽.

27) 박일용, 앞의 논문, 36~37쪽.

침과 설움으로 인해 결국 혼절하기에 이르고 보통의 경우 살아날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된다. 화씨에 대한 소현성의 매몰찬 태도는 화씨가 서모인 석파에게 표독스러운 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다.<sup>28)</sup> 하지만 화씨의 상태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만삭의 상태였다는 점에서 너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렇기에 소현성은 이후 자신이 매몰차게 대한 것이 인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자상하게 화씨를 간호하는 것이다.

아내에 대한 소현성의 문제적인 모습은 여씨의 계략으로 인해 석씨를 음부(淫婦)이며 시어머니를 독살하려한 강상죄인으로 오해하는 사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소현성은 석씨의 애매함을 말하는 모친과 누이들 앞에서 임신한 석씨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옥사(獄司)에게 넘기려고 한다. 현성은 이 일로 인해 모친으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하지만 화를 참지 못하고, 양부인의 명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려는 석씨에게 독주를 마시고 죽으라 하고, 석씨의 혼서(婚書)와 채단(綵緞)을 불태운다. 혼서와 채단을 불태우려는 소현성에게 석파는 배속의 어린아이를 들며 만류하지만 현성은 “저는 평생의 무식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군신유의와 어머니 우러르는 뜻만 있을 뿐이고, 부부유별과 부자유친은 알지 못합니다.”라고 매섭게 말한다. 이러한 소현성의 모습은 진중하게 사리를 판단하고 사람의 속마음을 헤아리는 인물로 그려지던 평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며,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하여 자신의 핏줄까지도 의심하는 지경을 보여준다. 이는 석씨가 모친을 해하려하고 음란하게 행동한 것에 분노하는 모습으로, 현성의 지극한 효심과 금욕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여씨의 악행이 드러나 석씨의 무고함이 밝혀진 이후에도 현성은 또한 고집스럽고 불합리한 면모를 보여준다. 석씨를 데려오라는 모친

28) 정선희(2007), 앞의 논문, 459~461쪽.

의 명에 현성은 “소자가 비록 많이 쇠하였으나 어찌 부녀자를 데리고 다니겠습니까?”<sup>29)</sup>라고 하며 가지 않으려고 한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처가에 가서도 서운함을 표현하는 장인에게 도리어 신경질을 부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병이 난 자신을 정성껏 간호하는 석씨를 보면서도 소현성은 석씨를 냉담하게 대한다. 이는 석씨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석참정과 석장군이 칼을 들어 자기를 죽이려 한 일과 참정이 노하여 얼굴 빛을 바꾼 것에 화가 난 것이고, 석씨가 겉으로는 평안한 낯빛을 짓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깊이 맺힌 것이 있음을 생각하고 먼저 말을 꺼냈다가 그녀가 대답하지 않는 욕을 불까하여 쌀쌀한 얼굴을 하는 것이라고 서술된다. 이는 소현성 자신도 석씨의 억울한 마음을 잘 알고 있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석씨에게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보여준다.

소현성의 문제적 모습들은 모두 어머니들에 대한 ‘효’와 관련이 있다. 소현성이 과거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도, 화씨 및 석씨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한 것도 모두 어머니들에 대한 ‘효’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는 아내에 대한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은 아내 길들이기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소씨 가문의 이기주의적 측면이 드러나는 것이며<sup>30)</sup>, 경직된 효우의 실천과 가문의 안정이라는 명분에 가려진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sup>31)</sup>

소현성의 문제적 모습은 결국 ‘효’에 대한 강박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양부인은 어린 소현성에게

29) <소현성록> 3권, 52쪽.

30) 정선희(2007), 앞의 논문, 478~479쪽.

31) 조혜란, 「<소현성록>에 나타난 가문의식의 이면」, 『고소설연구』 27, 한국고소설학회, 2007, 92~95쪽.

끊임없이 ‘아비 없이 홀로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를 강조하며, 엄한 질책을 통해 금욕적으로 생활하도록 훈육한다. 이는 소현성에게 ‘효’라는 자식 된 도리로서 절대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며, 양부인의 욕망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 부모 가정에서 가문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라야했던 소현성은 당연히 효성이 지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더해진 양부인의 엄격한 훈육방식은 소현성에게 있어 모친에 대한 의존적 성향, ‘효’에 대한 강박증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또한 아동심리의 측면에서 부모가 엄격하게 통제하고, 명령하고, 제재하는 것이 많을 경우 아동은 복종적이며 순종을 잘하고 공손하고 예의가 바르지만, 자주성, 자발성, 독창성이 부족하여 주체성이 결여되고 자신감이 없는 행동을 보이며 눈치를 살피고 의존적이 된다고 한다. 또한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에게 욕구좌절이나 분노를 누적시키게 되고, 이러한 누적된 욕구좌절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나 적대감의 형태로 나타나고 공격적인 모델을 제공하여 공격성을 조장하게 된다고 한다.<sup>32)</sup>

따라서 아내들과 처가 식구들에 대한 소현성의 폭력적인 성향 역시 양부인의 엄격한 훈육방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아내에 대하여 폭력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권위적인 소현성의 모습은 실질적으로 가권을 승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으로서의 권위에 대한 대리만족으로 이해할 수 있고<sup>33)</sup>, ‘효’라는 명목 하에 절대적인 순종을

32) 김문정,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39쪽.

33) 서정민, 앞의 논문, 203~227쪽. 여기에서는 소현성과 양부인의 가문 내 역할을 비교하면서, 실질적으로 가권은 양부인에게 있었고, 그 가권 또한 소현성이 아닌 소월영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강조하던 여성 가장 양부인의 리더십이 초래한 부정적인 결과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 4. 여성 가장의 리더십과 과도기적 시대상황

앞서 살펴본 양부인의 엄격한 자녀교육과 소현성의 ‘효’ 집착은 17세기 중후반의 이념지향적 시대상황과 관련이 있다. 17세기 중후반의 조선사회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해 드러난 봉건지배체제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이론적 무장이 지배층 내부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였다.<sup>34)</sup> 그리고 이는 부계혈통을 중심으로 친족을 조직화하면서 가부장제의 강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사대부가 여성들의 생활은 변화되어 갔다. 서류부가혼이 친영례로, 자녀균분상속이 적장자상속으로 변화하면서 사대부가 여성들은 친정살이에서 시집살이로 생활양식을 바꾸어야 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여성교육과 여성의 자의식이 강화되었다. 여자를 가르치지 않으면 남의 집안을 망하게 한다는 인식 속에서 딸에 대한 교육이 중시되었고, 수신, 인륜, 집안 경제, 자녀교육에 대한 유교적 교양으로서 부덕(婦德)의 함양 등이 사대부가 여성들에게 주요한 덕목으로 강조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대부가 여성들은 스스로 지적 활동을 강화하여 자아 계발에 힘쓰고, 이를 토대로 가정과 가문을 이끄는 리더십을 갖추어 나갔는데, 이는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에 수록된 여성 행장의 기록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35)</sup> 시집에 정착한 사대부가 여성들은 자녀

34) 박영희, 앞의 논문, 54쪽.

35) 한희숙, 『조선후기 兩班女性の 생활과 여성 리더십』, 『여성과 역사』 9, 한국여성사학회, 2008, 5~13쪽. 여기에서는 ‘정형지 외 역주,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4,

들의 첫 스승이자 자식의 인생을 이끄는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였고, 자식은 어머니를 닮은 이가 많다고 하여 어린 자녀 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게 부과되었다. 특히 일찍 과부가 된 여성들은 자식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자식이 잘못된 것을 보면 매섭게 꾸짖고 조금의 잘못도 봐주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가부장의 부재를 자식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메웠던 것이다.<sup>36)</sup>

<소현성록>에 나타난 양부인의 엄격한 자녀교육 또한 작품의 주 독자층이었던 이러한 사대부가 여성들의 생활양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가문의식의 강화 속에서 아들의 출세를 통해 가문을 유지하려는 사대부가 여성들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대부가 여성들의 리더십은 주로 가정과 가문을 중심으로 발휘되었기에 다소 가족이주의 또는 가문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낳을 위험성을 안고 있는데, 작품에 구현된 양부인의 엄격한 훈육과 소현성에 대한 욕망 투사는 이러한 시대 상황의 소설적 재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17세기 중후반은 또한 성리학이 예학으로 대칭될 만큼 예학이 성행한 시대이기도 했다. 예학의 성행은 위기지학(爲己之學)의 강조와 연결되면서 명분리리에 맞는 합례적(合禮的) 행위에 따라 인간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고, 합례적 행위자인 군자와 그렇지 않은 소인을 철저하게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정치적으로 당파의 형성과 붕당정치의 치

---

보고서, 2006'에 수록된 다양한 여성 행장을 토대로 당시 시대상황 속에서 사대부가 여성들의 교육이 강화되었고, 여성들 스스로 지적 능력을 향상을 통해 리더십을 향상시키고, 자녀교육 및 가정과 가문의 관리에서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36) 한희숙, 앞의 논문, 13~21쪽. 여기에서는 김만중의 어머니 윤씨, 나만갑의 부인 정씨, 오도일의 어머니 한양 조씨 등의 행장을 통해 과부들의 자식 교육이 매우 엄격하였음을 살피고 있다.

열한 대립 및 예송논쟁으로 이어졌다.<sup>37)</sup> 이 과정에서 사대부 계층들은 상호배타적으로 당파, 문벌, 가문의 내적 결속을 강화시켜 나갔고, 이로 인해 가문의식이 팽창하고 별열화의 양상이 나타난다.<sup>38)</sup>

여기에서 17세기의 예학은 주자가례 중심의 서인 예설(西人 禮說)과 고례(古禮)를 중시하는 남인 예설(南人 禮說)로 대립되면서, 종통(宗統)과 가통(家統)의 문제가 쟁점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종통과 가통을 차별화려는 남인 예설이 국가-군왕 중심의 의리론이라면, 종통과 가통의 일원을 요구하는 서인 예설은 종법-혈통 위주의 의리론으로서 각각 ‘충’과 ‘효’의 도덕규범과 상응한다고도 볼 수 있다.<sup>39)</sup> 예송(禮訟)이란 왕위계승의 자의성을 종법으로 규제하려고 했던 정치투쟁으로서, 왕권을 규제하려는 세력과 왕권을 강화하려는 세력의 분화와 투쟁으로 나타나는데<sup>40)</sup>, 전자의 세력은 효가 곧 충이므로 효를 중시하는 서인 예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고 후자는 효와 충을 차별화하여 충을 중시하는 남인 예설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조선조 예송논쟁의 결말은 왕권을 규제하려고 했던 서인의 승리로 귀결된다. 즉 왕과 사서인(士庶人)의 예가 동일하다고 보는 서인 예설의 입장에서 예학이 정립되는 것이고, 이는 정치적으로 신권과 왕권의 대립에서 신권이 더욱 우위에 서는 결과를 가져왔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예학의 분화와 대립이라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소현

37) 윤사순, 『한국유학사상사론』, 도서출판 예문서원, 2002, 131~134쪽.

38) 장효현, 「장편가문소설의 성립과 존재양태」, 『정신문화연구』 14집 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25쪽.

39) 금장태, 「17세기 조선조 예학과의 예설과 그 사회의식」, 『종교학연구』 11,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1992, 231쪽.

40) 김상준, 「조선시대의 예송과 모랄폴리티크」, 『한국사회학』 제35집 2호, 한국사회학회, 2001, 231쪽.

성록>은 서인 예설의 입장을 반영하며 이념지향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소현성이 대리시험을 치르는 것에 나타난 서술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소현성은 대리시험을 통해 효를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이를 남의 급한 상황을 구제해주는 군자적 행위라고 여기고 있다. 여기에는 대리시험이 국가의 정치적 근간을 뒤흔드는 ‘불충(不忠)’일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내재해 있지 않다. 효와 충을 동일시하면서 효를 더욱 우선시했던 서인 예설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소현성록>이 공주혼을 통해 황제도 인정하고 수호해야 할 법제화된 윤리규범과 가부장권의 가치에 대해 표창하는 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소현성록>이 공주혼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아무리 신분과 세력이 크더라도 가정 내에서 여성은 지아비에게 순종하고, 가부장에게 굴복해야 한다는 당대의 의식이다. 황제라 할지라도 근본 강상의 윤리를 존중하고 한 가문의 가부장권을 존중해야 질서가 바로 선다는 사대부가의 논리를 보여주고 있다. 즉 예의 적용이 황실이나 사대부구나 동일한 원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식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sup>41)</sup> 이러한 관점은 <소현성록>과 함께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의 초기 작품으로 이해되는 <유효공선행록>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소현성록>과 마찬가지로 <유효공선행록> 또한 가부장의 부재상황을 그려내고 있다. 어머니가 부재하고, 아버지가 혼암(昏暗)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작품은 남주인공 유연이 이러한 문제적 상황 속에서 ‘효우’를 통하여 온전한 가장으로서 존립하고 가문을 안정시키는 서사를 전개한다. 이 과정에서 유연은 ‘효’와 ‘의(義)’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효를 선택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아버지를 위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부인 정씨를 매

41) 박영희, 『<소현성록>에 나타난 공주혼의 사회적 의미』,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27쪽.

질하여 내쫓고, 또 장인이 부친의 잘못을 상소하려던 사건으로 인해 정씨를 냉대하고 친아들인 우성에게도 매몰차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효를 선택하면 불의가 되고, 의를 선택하면 불효가 되는 관계 설정에서 효를 의보다 우선시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보다는 효수행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파악하는 서술시각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42)</sup>

초기의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로서 <소현성록>과 <유효공선행록>이 가부장의 부재상황을 설정하고 효를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서술시각을 보여준다는 것은 곧 흐트러진 지배질서를 재정립하려는 사대부들의 시대인식과 예송논쟁의 결과로서 효 중심의 서인 예설이 주류가 되고 가문의식이 팽창하였던 사회사적 배경 등을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가부장의 부재상황은 17세기의 작품들로 파악되는 <구운몽>,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등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설정이다. 물론 <구운몽>의 경우 가부장의 부재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나타나지 않지만, 나머지 작품들에서는 가정이나 가문의 안정이라는 유사한 문제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가부장의 부재 상황 설정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념지향적 성격이 강화되었던 17세기 국문장편소설의 한 특성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17세기 중후반은 아직까지 주자가례(친영례), 종법제도, 적장자상속제도 등 조선후기의 가문의식을 대표하는 제도들이 온전하게 정착되지 못한 과도기였다. 법적인 추진과는 달리 아직까지 기존의 서류부가혼, 외손봉사, 자녀균분상속 등의 풍습이 여전히 유지되면서 이념과 실제 현실적 삶이 갈등을 일으켰던 시기였던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창작되고 향

42) 조혜란,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가장권 행사의 문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5, 163쪽.

유되었던 <소현성록>은 당연히 가문의식의 측면에서 과도기적이고 모색기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친영이 이루어지는 혼인과 그렇지 않은 혼인이 혼재하고 있다거나<sup>43)</sup>, 아들, 딸 양계를 아우르는 가문의식 지향을 보여준다는<sup>44)</sup> 등의 선행 논의들은 17세기 중후반의 과도기적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소현성록>의 작품 성격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현성록>에 나타난 가부장의 부재상황, 여성 가장인 양부인의 유교적인 제가와 훈육, 소가장으로서 소현성의 군자적 성격 등은 양란으로 인해 드러난 봉건지배체제의 모순을 극복해야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유교적 이념으로 무장한 리더의 필요성에 대하여 사대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작품은 곳곳에서 여성 가장의 욕망을 투사하고, 소현성의 문제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공평무사한 제가를 보여주는 양부인이 소현성에게만큼은 강압적인 훈육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고, 대외적으로 성인군자로 추앙받는 소현성이 중심서사라 할 수 있는 혼사갈등에서 판단력을 상실하고 폭력적으로까지 보이는 언행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소현성록>은 이념 지향적 서술태도의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한편 현실적 욕망과 문제들을 표출하는 이원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 5. 결론 - 가문의 안정과 성장하는 리더십

이상에서 본전 <소현성록>을 대상으로 양부인의 리더십과 소현성의

43) 김경미, 『주자가례의 정착과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례의 양상』,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5~28쪽.

44) 서정민, 앞의 논문, 221~222쪽.

‘효’ 실천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였다. 작품에서 양부인은 소현성을 매섭고 엄하게 교육하고, 그 결과 소현성은 절제와 금욕의 미덕, 지극한 효성을 갖춘 인물로 훌륭하게 성장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양부인의 아들에 대한 욕망 투사와 소현성의 강박적인 ‘효’ 실천이라는 측면도 살펴볼 수 있다. 그렇지만 양부인의 리더십이 잘못되었고, 소현성이 문제적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가문의 안정이라는 측면에 주목할 때, 가부장이 부재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여성 가장에게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아들을 어머니에게 순종하며 지극한 효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 어찌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양부인의 리더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위해서는 가문의 안정에 주목하는 본전과 가문의 별열화 과정에 주목하는 별전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소현성록> 연작 전반을 대상으로 “가문의 위상 변화 속에서 리더십이란 고된 것일까? 아니면 변화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온전한 답을 찾아야 양부인이 지닌 리더십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불교는 믿을 게 못되고, 수륙재를 한다면 자신은 차마 조정에 다니지 못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간언하는 소현성에 대하여 “승상이 평소 소에 말마다 맑고 깨끗하고 순종하니 너무 풀어져서 강직하고 현명하지 못하다고 여겼는데 오늘 간쟁하는 것을 보니 또한 풀어지지 않았구나”<sup>45)</sup>라는 <소씨삼대록> 속 양부인의 독백이 주목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이 대목을 양부인이 소현성의 자질에 대하여 일말의 불신을 품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양부인이 소현성에게 가문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았던 이유로 파악하고 있다.<sup>46)</sup> 하지만 양부인이 죽을 때까지 가권을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은 본전인 <소현성록>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서, 별전

45) <소현성록> 10권, 88~89쪽.

46) 서정민, 앞의 논문, 213~214쪽.

인 <소씨삼대록>의 언급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평소에 말마다 맑고 깨끗하고 순종하니 너무 풀어서 강직하고 현명하지 못하다고 여겼는데’라는 언급은 본전에 나타난 소현성의 인물성격과 문제적 모습을 생각나게 한다. 그런데 소현성이 불도(佛道)에 대하여 간쟁하는 것은 양부인에게 있어 처음으로 아들이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지만, 온화하지만 단정하고 엄숙하면서 위엄이 당당한 모습으로서 가슴 속에 기쁨이 가득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가 구성원을 통제하고 또 그들의 잘못을 책임지는 가장의 의무’<sup>47)</sup>를 다하는 소현성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를 보면서 기뻐하는 양부인의 모습 또한 본전에서 자신에 대한 순종을 강요하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두 인물의 성격 변화는 어린 아이였던 소운성이 석과가 장난으로 찍은 앵혈을 없애기 위해 그녀의 친족인 소영을 겁탈한 사건에서 호색함을 바라보는 양부인과 소현성의 시선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소현성은 이 사건을 알고 “남자가 혹 방탕하여 삼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너는 아직 어린아이로서, 집안에서 음란하기를 방자하게 하고 또 집 밖에서 놀며 미녀를 엿보아 예의가 아닌 일로 혼인을 청하였다. 이는 나를 없는 것 같이 여긴 것이니 내가 무슨 면목으로 네 아버가 되겠느냐? 자식을 가르치지 못한 죄가 무척 부끄럽다.”<sup>48)</sup>라고 하며 스스로 더러운 물 세 사발을 마셔서 벌을 받으려고 한다. 이러한 모습은 본전에서 소현성이 여색에 대하여 경직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과 차이를 보이면서, 가 구성원으로서 자식의 잘못에 대하여 술선수범하여 책임을 지려는 가장의 본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소현성에게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강요했던 양부인은

47) 정지영, 『조선시대 ‘가장’의 지위와 책임 - 법전의 규정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5-1, 한국가족학회, 2013, 134쪽.

48) <소현성록> 5권, 81~82쪽.

소현성이 소운성의 호색함을 책망한 것에 대하여 “소영의 일은 비록 단정치 못한 일이지만 그 애의 기상이 아름다우니 어찌 오래도록 책망하느냐? 운성이 만약 지금까지 앵혈을 그저 그대로 두었다면 이는 또 너무 유약하다고 할 만하니 이 일에 대해서는 허물하지 마라.”<sup>49)</sup>라고 하면서 운성의 방탕함을 사내대장부의 아름다운 기상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본전에서 여성 가장으로서 풍류에 대하여 엄격했던 양부인이었지만 별전에서는 손자의 잘못을 감싸주는 다정한 할머니로 변모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본전에서 아들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강조했던 여성 가장 양부인, 양부인의 뜻을 받들기만 하던 순종적인 가문 구성원 소현성의 인물성격과 역할이 별전에서는 안정된 가문을 배경으로 변화된 모습으로써, 리더십이라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고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 가문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는 다소 권위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지만 안정된 가문을 유지하고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책임감 있고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리더십, 포용성과 유연성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

49) <소현성록> 5권, 85쪽.

## 참고문헌

- 금장태, 「17세기 조선조 예학과의 예설과 그 사회의식」, 『종교학연구』 11,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1992, 177~233쪽.
- 김경미, 「주자가례의 정착과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례의 양상」,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5~28쪽.
- 김문정,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74쪽.
- 김상준, 「조선시대의 예송과 모랄폴리틱」, 『한국사회학』 제35집 2호, 한국사회학회, 2001, 205~236쪽.
- 박영희, 「<소현성록>에 나타난 공주혼의 사회적 의미」,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5~35쪽.
- 박영희, 「<소현성록> 언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3, 1~258쪽.
- 박일용, 「소현성록의 서술시각과 작품에 투영된 이념적 편견」, 『한국고전연구』 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5~39쪽.
- 서정민, 「가권승계로 본 <소현성록> 가문의식의 지향」, 『국문학연구』 30, 국문학회, 2014, 203~227쪽.
- 송성욱, 「17세기 소설사의 한 국면」, 『한국고전연구』 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3, 241~270쪽.
- 양민정, 「<소현성록>에 나타난 여가장의 역할과 사회적 의미」, 『외국문학연구』 12, 한국외대 외국문학연구소, 2002, 101~126쪽.
- 윤사순, 『한국유학사상론』, 도서출판 예문서원, 2002, 1~528쪽.
- 이정희·이기숙, 「한부모 여성가장의 독서치료 사례 연구」, 『독서치료연구』 3권 1호, 독서치료연구학회, 2010, 73~91쪽.
- 이지하, 「소현성록의 이중성에 내재된 욕망의 실체」, 『반교어문연구』 40, 반교어문학회, 2015, 237~269쪽.
- 임치균,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인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29~48쪽.
- 장효현, 「장편가문소설의 성립과 존재양태」, 『정신문화연구』 14집 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21~39쪽.
- 전경문, 「한글편지를 통해 본 조선후기 과거제 운용의 한 단면」, 『정신문화연구』

- 34집 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27~25쪽.
-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돌베개, 2005, 1~379쪽.
- 정선희, 「〈소현성록〉에 드러나는 남편들의 폭력성과 서술 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453~487쪽.
- 정선희, 「〈소현성록〉 연작의 남성 인물 고찰」,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37~68쪽.
- 정지영, 「조선시대 ‘가장’의 지위와 책임 - 법전의 규정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5-1, 한국가족학회, 2013, 125~159쪽.
-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 『고소설연구』 4, 한국고소설학회, 1998, 293~327쪽.
- 조광국, 「〈소현성록〉의 별명 성향에 관한 고찰」, 『은지논총』 7, 은지학회, 2001, 87~113쪽.
- 조혜란,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가장권 행사의 문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5, 155~184쪽.
- 조혜란, 「소현성과 유교적 삶의 진정성」, 『고소설연구』 36, 한국고소설학회, 2013, 167~200쪽.
- 조혜란, 「〈소현성록〉에 나타난 가문의식의 이면」, 『고소설연구』 27, 한국고소설학회, 2007, 73~107쪽.
- 조혜란, 「소현성록의 보여주기 서술과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217~264쪽.
- 한희숙, 「조선후기 兩班女性의 생활과 여성 리더십」, 『여성과 역사』 9, 한국여성사학회, 2008, 1~48쪽.

ABSTRACT

The Leadership of Female Breadwinner Shown in Sohyunseongrok  
and its Significance

Kang, Woo-kyu

Sohyunseongrok is an ideology oriented work with the story that Sohyunseong, who grew up in the Confucian atmosphere and discipline under the female breadwinner, Lady Yang, takes filial duty as the foremost value and practices it, and stabilizes his family. During the process of upbringing, Lady Yang shows a rather coercive and authoritative leadership, which is understood as projecting her own desire to her son and forcing absolute obedience. As a result of that, Sohyunseong sometimes shows problematic behaviors such as cheating in national exam and displaying abusive remarks or behavior to his wives. This means that this work reflects the transition period of the mid-late 17th century and contains both the Confucian ideological orientation and realistic desires. In the meantime, in supplementary copy, the characteristics and roles of Lady Yang and Sohyunseong change, which results from the awareness of a problem about imperfect leadership in the main copy, and these can be understood as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main copy and supplementary copy.

**Key Words** patriarch, female breadwinner, Sohyunseongrok, way of education, ideology, desire

논문투고일 : 2016.10.15  
심사완료일 : 2016.11. 2  
게재확정일 : 2016.11.15